

한국 축구, 이란 꺾고 월드컵 최종 예선 조 1위 등극



▲ 이란 전 승리 후 기념사진을 찍는 축구대표팀 선수단. 사진=KFA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1년 만에 난적 이란을 꺾고 월드컵 최종예선 A조 1위로 올라섰다.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된 한국은 남은 10차전에서 승리하면 조 1위로 본선을 향한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차전 홈경기에서 전반 추가시간 터진 손흥민의 선제골과 김영권의 해키골을 앞세워 2-0

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무패 행진을 이어간 한국은 승점 23(7승 2무)을 쌓으면서 이란(승점 22)을 밀어내고 조 선두로 올라섰다.

특히 한국은 이날 승리로 11년 묵은 이란전 한을 깨끗하게 씻어냈다. 한국은 이란을 상대로 지난 2011년 아시안컵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승리한 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한국과 이란의 맞대결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만원 관중은 2019년 3월 26일 열린 터키와와의 친선 경기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축구 전용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만석이 된 것은 2001년 개장이래 이번이 10번째다.

경기가 끝난 후 주장 손흥민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며 "안 힘들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도 많은 팬분들 앞에서 경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골을 넣고 이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임스, 내년 1월 NBA 역대 최다 득점자 등극할 듯

농구에서 가장 위대한 기록은 무엇일까? 역대 최다 트리플더블, 최다 3점슛, 최다 우승, 최다 리바운드, 최다 어시스트, 최다 블록슛, 최다 스텝이 아니다. 역대 최다 득점이 가장 위대한 기록이다. 최고의 기량으로 장수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 르브론 제임스. 사진=theho.com

며 칼 말론(3만 6천 9백 28 득점)을 제치고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2003-2004시즌 데뷔한 후 19년 만에 자신의 1천 363번째 경기에서 세운 기록이다.

제임스는 데뷔 시즌부터 38살이 된 현재까지 매 시즌 평균 20득점 이상을 올리며 변함없는 기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도 이날 현재 평균 29.8득점으로

지난 22일 '마니아타임스'에 따르면 '농구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도 하지 못한 대업에 르브론 제임스가 도전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풍미했던 커림 압둘 자바의 역대 최다 득점(3만 8천 3백 87점) 기록을 깨고 득점왕이 되려는 것이다.

제임스는 지난 19일 워싱턴 워저즈전에서 38점을 추가하며 이날 현재까지 3만 6천 9백 47 점을 기록하

조엘 엠비드(필라델피아·30.0득점)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압둘 자바를 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제임스는 2023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께 압둘 자바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NBA 전문가들은 제임스가 압둘 자바의 기록을 넘어 4만 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상혁, 한국인 최초 세계 육상선수권 우승



▲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는 우상혁. 사진=dympics.com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 육상 역사를 새로 썼다.

지난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상혁은 전남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카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 넘어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에 출전한 12명의 선수 중 우상혁만 유일하게 2m34를 통과해 금메달을 따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인이 메달을 따낸 것은 우상혁이 최초다.

경기 초반 2m20, 2m24, 2m28을 모두 가뿐히 넘은 우상혁은 2m31에서 두 번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지만 3차 시기에서 2m31을 넘은 뒤 2m34를 한번에 성공했다. 그는 이후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2m36)보다 높은 2m37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그의 도전에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우상혁은 지난해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2m35를 넘어 4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순위를 떠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경기를 즐기던 우상혁의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이후 올해 2m36을 기록하며 한국 기록을 세웠고, 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에 올라 있다.

우상혁은 오는 7월 미국에서 진행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바라본다. 또한 9월에 열리는 한중 우아시안게임서도 금메달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내후년 파리올림픽에서도 메달권 진입을 노려볼 만하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